

후원자님께,

안녕하세요 후원자님!

저는 2018년도 킹덤드림 장학금을 받게 된 최성경입니다.

먼저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, 많은 학생들을 위해 재정으로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신 후원자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

저는 지금 바이올라 대학에 재학중이고 내년 5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.

대학교 졸업 후 탈북 신학교에서 Spiritual Formation and Soul Care 를 공부하고 싶은 소망이 있고,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, 소외되고 고통받는 엠케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싶습니다.

저의 부모님은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10여년간 사역하시다가 추방당하신 후

2년전 프랑스로 재배치 받으시고 마르세이유라는 지역에서 무슬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.

선교지가 물가가 비싼 나라로 옮겨지면서 저와 오빠의 학비는 채워질 수 없는 뿐더러 부모님의 생활비도 빠듯한 환경이 되었습니다.

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 학비는 친척들의 큰 도움으로 지난 2년간 채워졌고, 생활비는 매달 보내주시는 다른 여러 도움의 손길들로 채워졌습니다.

그 시간동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 삶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시는것을 경험하며, 제가 미국에 와 공부하고 생활하는 모든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것을 보게 되었습니다.

킹덤드림 장학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같은 날 오후,

친척들의 학비 후원이 끊겼다는 소식이 함께 왔습니다.

많이 두렵고 떨렸지만, 오전에 하나님께서 장학금으로 채우신 \$2000 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.

또한 지난 2년간 매월 채우신 일들을 기억하며, 제정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, 지금까지 그리하셨던 것 처럼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.

후원자님을 통해 받은 이 장학금은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의 증표였고,

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절 담대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.

이 일을 기억하며,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남은 대학교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.

저의 삶의 여정에 한 부분을 재정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

하나님께서 후원자님의 섬김과 마음을 받으시어 배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!

2018.07.14, 최성경 올림